

또 하나의 전쟁 '집 수송'

KIA 타이거즈 선수단 오늘 귀국 야구장비·가방 등 총 3톤 규모 실무진 수송 대책회의까지 열어

KIA 타이거즈가 6일 집과의 전쟁을 벌인 다.

지난달 9일 일본 오키나와에 캠프를 차려던 '호랑이 군단'이 6일 오후 12시40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큰 부상선수 없이 캠프 스케줄을 무사히 소화했지만 KIA의 귀국길에는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있다. 바로 '집 수송'이다.

6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팀은 KIA뿐만이 아니다. 오키나와리그에 참여했던 한화화 LG도 같은 날 귀국을 하면서 나하 국제 공항에는 '집전쟁'이 예고된다.

야구단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선수단과 프런트를 포함 60여 명의 인원이 한번에 움직이는데다 개인 가방은 물론 각종 야구 장비 등 3톤 가량의 짐이 함께 이동하기 때문이다.

실상가상 이번에는 3개 팀이 동시에 귀국하면서 항공사와 공항에 비상이 걸렸다.

일일이 짐을 스캔하고 무게를 재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3개팀 실무진이 집 수송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기도 했다.

이른 아침부터 순서대로 수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난관은 또 있다. 짐터미에서 짐

을 찾는 일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개인 장비 가방에는 소속팀 로고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전력분석 장비 등 공용 짐과 개인 가방의 경우 따로 탐발로 표시를 해줘야 한다.

선수들도 귀국을 앞두고 짐을 꾸리느라 진땀 흘렸다. 지난 1월9일 이범호 등 재활조를 필두로 시작된 캠프 기간이 50일을 넘으면서 그 사이 짐이 배로 늘었다. 에리조나 캠프 휴식일 틈틈이 쇼핑을 하며 쌓아둔 옷가지만 해도 한 보따리다.

'집전쟁'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리그의 인기는 상승가를 치고 있다.

올 시즌 신축 구장인 킨 구장을 차지한 KIA를 비롯해 삼성, SK, 넥센, LG, 한화화 오키나와에 캠프를 차렸고 요미우리, 라쿠텐, 야쿠르트 등 9개 일본 프로야구팀도 오키나와에서 봄을 준비하면서 오키나와 리그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국내팀의 연습경기에는 각 팀들의 전력분석팀이 파견되면서 치열한 탐색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미국에 이어 대만에서 2차 캠프를 치렀던 신생팀 NC도 박종훈 육성이사도 오키나와에 파견해 전력 분석에 나섰다. 이와 함께 내년 시즌 오키나와 리그 참여를 노리며 캠프 지 물색을 하기도 했다.

따뜻한 기후와 훌륭한 야구 인프라 그리고 저렴한 연습경기 상대, 오키나와 리그의 인기는 2014시즌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곤봉에서 메달 따 더 기뻐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가즈프롬 리듬체조 그랑프리 대회 곤봉 종목에서 동메달을 딴 손연재가 5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듬체조 동메달 손연재 귀국

U대회·선수권도 기대하세요

올 시즌 첫 국제대회를 마친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19·연세대)가 약점으로 꼽혔던 곤봉에서 메달을 따낸 것에 큰 기쁨을 나타냈다.

손연재는 2013 가즈프롬 리듬체조 그랑프리 대회를 마치고 5일 인천공항을 통해 돌아와 “새 프로그램을 보여 드리고 새 규칙에 적응하는 도전에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회 개인 종목별 결선 중 손연재는 곤봉에서 16.533점을 획득, 마르가리타 마문(러시아)과 실비아 미테바(불가리아)에 이

■ 손연재 그랑프리 성적
곤봉 16.533 동메달
리본 16.233 6위
개인종합 61.498 10위

어 3위에 올랐다. 지난해 런던올림픽에서 잇따라 실수가 나왔던 곤봉에서 메달을 목에 걸어 의미가 더욱 크다. 손연재는 “예상보다 곤봉에서 일찍 성과가 나와서 기쁘다”면서 “곤봉에서 유일하게 가사 있는 음악을 쓰는데 노래와 프로그램이 모두 좋아서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손연재는 대회 개인종합에서는 후프(15.166점), 볼(15.416점), 곤봉(15.166점), 리본(15.750점) 함께 61.498점으로 전체 34명 중 10위에 올랐다. 종목별 결선에서는 곤봉

16.533점(동메달), 리본에서 16.233점(6위)을 받았다.

손연재는 “올림픽 이후 첫 국제대회라 긴장이 많이 했다”면서 “첫날 경기 이후 긴장이 풀리고 감을 찾으면서 더 나아질 것 같다”고 돌아봤다.

올해 초 손연재는 부상으로 시즌 준비가 늦어져 대회 출전 여부를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즌 첫 대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면서 7월 유니버시아드와 8월 말 세계선수권대회에 순조롭게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손연재는 “올림픽 이후 기대치가 높아져 부담이 많았지만, 경험을 통해 여유가 생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손연재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완성도 높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 라커룸을 가득 채운 KIA 선수단의 짐. 6일 KIA는 3톤이 넘는 짐과 함께 오키나와 캠프에서 철수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세돌, 대국 없어도 1인자 자리는 불변

한국기원 3월 랭킹...박정환 2위

‘벵돌’ 이세돌 9단(사진)이 3월에도 1인자의 자리를 지켰다.

한국기원은 이세돌이 2월 한달 동안 단 한번의 대국도 치르지 않았지만 9834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1위에 올랐다고 5일 밝혔다.

2위 박정환 9단은 제31기 KBS바둑왕전 우승, 제14기 맥심배 입선최강전 결승 진출 등 4승2패의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제18기 GS칼텍스배 16강전에서 상대적으로 점수 차가 많이 나는 김정현 3단에게 패하며 많은 점수를 잃어 지난해보다 2점 오른 9694점을 받는데 그쳤다.

3위와 4위는 변동 없이 최철한 9단과 조한승 9단이 지켰으며 김지석 8단이 한 계단 오른 6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잘나가는 태극女, 이번엔 유럽 투어 사냥 나선다

박인비·김효주 미션힐스 참가

내일부터 중국 하이난에서

평산산·주타누가른 등과 대결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상금왕인 박인비(25)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슈퍼 루키 김효주(18·롯데)가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미션힐스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60만달러)에서 정상에 도전한다.

7일부터 나흘간 중국 하이난성 미션힐스 골프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프로 개인·단체, 아마추어 개인 등 세 부문으로 나뉘어 경기가 펼쳐진다.

제1회 대회가 열린 지난해는 개최지인 중국이 3개 부문을 모두 휩쓸었다.

지난달 24일 혼다 LPGA 타이일랜드에서 극



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해 LPGA 투어 통산 4승째를 거둔 박인비는 청아니(대만), 최나연(26·SK텔레콤) 등 상위권 선수들이 불참하는 이번 대회에서 다시 한번 정상을 노린다. 혼다 타이일랜드 대회 우승으로 상승세를 탄 박인비는 올 시즌 LPGA 투어 상금랭킹 2위를 달리고 세계랭킹도 4위를 지키는 등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박인비는 2011~2012년 KLPGA 상금왕인 김하늘(24·KT)과 함께 한국 대표로 단체전에도 출전한다. 3주 연속 경기를 이어가는 박인비는 이번 대회 후 바로 미국으로 건너

가 LPGA 투어에 전념한다. 이번 대회로 시즌을 시작하는 김효주와 혼다 타이일랜드 대회에서 우승을 눈앞에서 놓친 아리아 주타누가른(태국)의 '10대 강자' 대결도 눈길을 끈다.

작년 아마추어 신분으로 3개 프로대회에서 우승한 김효주는 프로로 전향한 12월에는 KLPGA 현대차 차이나 레이디스 오픈에서 정상에 오르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태국 동계 훈련에서 쇼트게임과 체력훈련

에 전념한 김효주는 올 시즌 프로로서 확고히 자리 매김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허윤경(23·현대스위스), 양수진(22·정관장)과 '디펜딩 챔피언' 평산산(중국) 등도 출전해 기량을 펼친다.

/연합뉴스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택1
[와인 or 생맥주 1잔] 택1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